

아이를 안고 마트에 가면 가끔 이런 말을 들었다.

“아빠가 엄마를 잘 도와주시네요.”

처음에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기저귀 가방을 어깨에 메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른 팔로는 울먹이는 아이를 안고 있는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대개 웃었다.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 오래 멈췄다.

도와준다.

그 말 속에는 이상하게도 내가 잠깐 손님처럼 서 있었다.

아이는 아내의 아이가 아니었다. 집도 아내의 집이 아니었다. 밤마다 젖병을 씻고, 작은 양말을 뒤집어 넣고, 열이 오른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는 일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일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얼마나 자주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선심처럼 꺼냈을까.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부드러운 만큼 오래된 벽을 닦아 있었다.

집에는 이름표가 없는 일들이 많다.

아침마다 아이의 물통을 씻는 일, 떨어진 물티슈를 사는 일, 예방접종 날짜를 기억하는 일, 작은 손톱을 깎는 일, 밤새 몇 번이나 뒤척였는지 알아채는 일. 그런 일들은 소리 없이 쌓인다.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씩 덜어 가며, 또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많은 일들은 대개 엄마라는 이름 쪽으로 흘러갔다. 누가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오래전부터 그래 왔다는 이유로,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안의 작은 시계들은 한 사람의 손목에 더 많이 감겨 있었다.

어느 저녁, 우리는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다시 썼다.

‘엄마가 할 일’, ‘아빠가 할 일’ 이라는 말 대신 ‘오늘 우리 집에 필요한 일’ 이라고 적었다. 설거지. 빨래. 아이 약 먹이기. 어린이집 준비물 챙기기. 분리수거. 병원 예약. 장보기. 알림장 확인하기.

적어 놓고 보니 그 일들 어디에도 성별은 없었다. 접시는 남자의 손을 피하지 않았고, 쓰레기봉투는 여자의 손만 기다리지 않았다. 아이의 열은 엄마에게만 뜨거운 것도 아니었고, 아이의 웃음은 아빠에게만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물론 처음부터 잘되지는 않았다. 나는 아이 옷 서랍을 몰라 한참을 뒤졌고, 아내는 내가 접은 빨래를 보고 웃었다. 병원 앱 비밀번호를 몰라 당황한 날도 있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잘못 골라 다시 냉장고 문을 연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 서툰 시간들이 나를 조금씩 가족의 안쪽으로 데려갔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책임지는 사람’의 자리에 앉는 법을 배웠다.

평등은 거창한 선언으로만 오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게”를 “내가 할게”로 바꾸는 일.

“엄마한테 물어봐”를 “우리 같이 찾아보자”로 바꾸는 일.

“아빠가 봐주는 날”을 “아빠가 함께 있는 날”로 바꾸는 일.

말 하나를 바꾸자 집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칭찬을 바라며 하던 일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미안함으로 바라보던 일은 함께 움직여야 할 일이 되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젖병이 씻기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아이의 잠투정이 잦아들지 않았다.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자주 늟었다. 사랑은 결국 손에 묻어야 했다. 물비누 냄새로, 젖은 수건으로, 새벽의 체온계로, 식탁 위 빈 그릇을 치우는 손길로.

나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난다. 그래서 집에서 배운 일은 교실 문턱을 넘어왔다. 예전에는 무심코 “남학생 몇 명 나와서 책상 좀 옮기자” 라고 말했을지 모른다. “여학생들이 글씨를 예쁘게 쓰니까 꾸미기를 맡아 줄래?”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별뜻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별뜻 없이 던진 말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작은 울타리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요즘 나는 역할을 나눌 때 먼저 묻는다.

“누가 해 보고 싶니?”

“누가 함께할 수 있니?”

힘이 센 아이만 책상을 옮기지 않는다. 꼼꼼한 아이만 꾸미기를 하지 않는다. 남자아이가 분홍색 색종이를 골라도, 여자아이가 축구 경기의 심판을 맡아도,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선택한 일일 뿐이다. 아이들이 “남자라서”, “여자라서” 가 아니라 “내가 해 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는 순간, 교실은 조금 넓어진다.

언젠가 한 아이가 색연필 통을 뒤적이다가 말했다.

“선생님, 이건 남자 색깔 여자 색깔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조용히 환해졌다. 어쩌면 양성평등은 아이들에게 새로 가르쳐야 할 말이 아니라, 어른들이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배우는 일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세상을 나누기 전에 먼저 좋아한다. 어른들이 그 위에 이름표를 붙이고, 선을 긋고,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르쳤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의 작은 양말을 개며 생각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을 돕는 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함께 먹은 그릇을 함께 치우고, 함께 어질러진 방을 함께 정리하고, 함께 울던 밤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꿈을 고를 때, 그것이 남자의 꿈인지 여자의 꿈인지 묻기보다, 자기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인지 먼저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양성평등은 멀리 있는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장고 앞의 메모지였고, 아이의 열을 재는 손이었고, 교실에서 역할을 정하는 말투였고, 좋아하는 색을 마음껏 고르게 하는 일이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때때로 한 문장을 고쳐 쓰는 일에서 시작된다.

“아빠가 엄마를 잘 도와주시네요.”

이제 같은 말을 들으면 나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하고 싶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중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이 아니다. 나부터 잊지 않기 위한 말이다. 나는 좋은 아빠라는 칭찬보다 당연한 가족이라는 이름이 더 좋다. 좋은 남편이라는 말보다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좋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도와주는 아빠를 그만둔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몫으로 기울어 있던 하루를, 둘이 함께 들어 올린다.